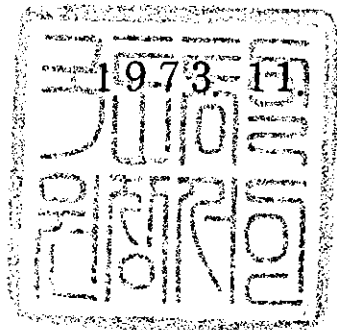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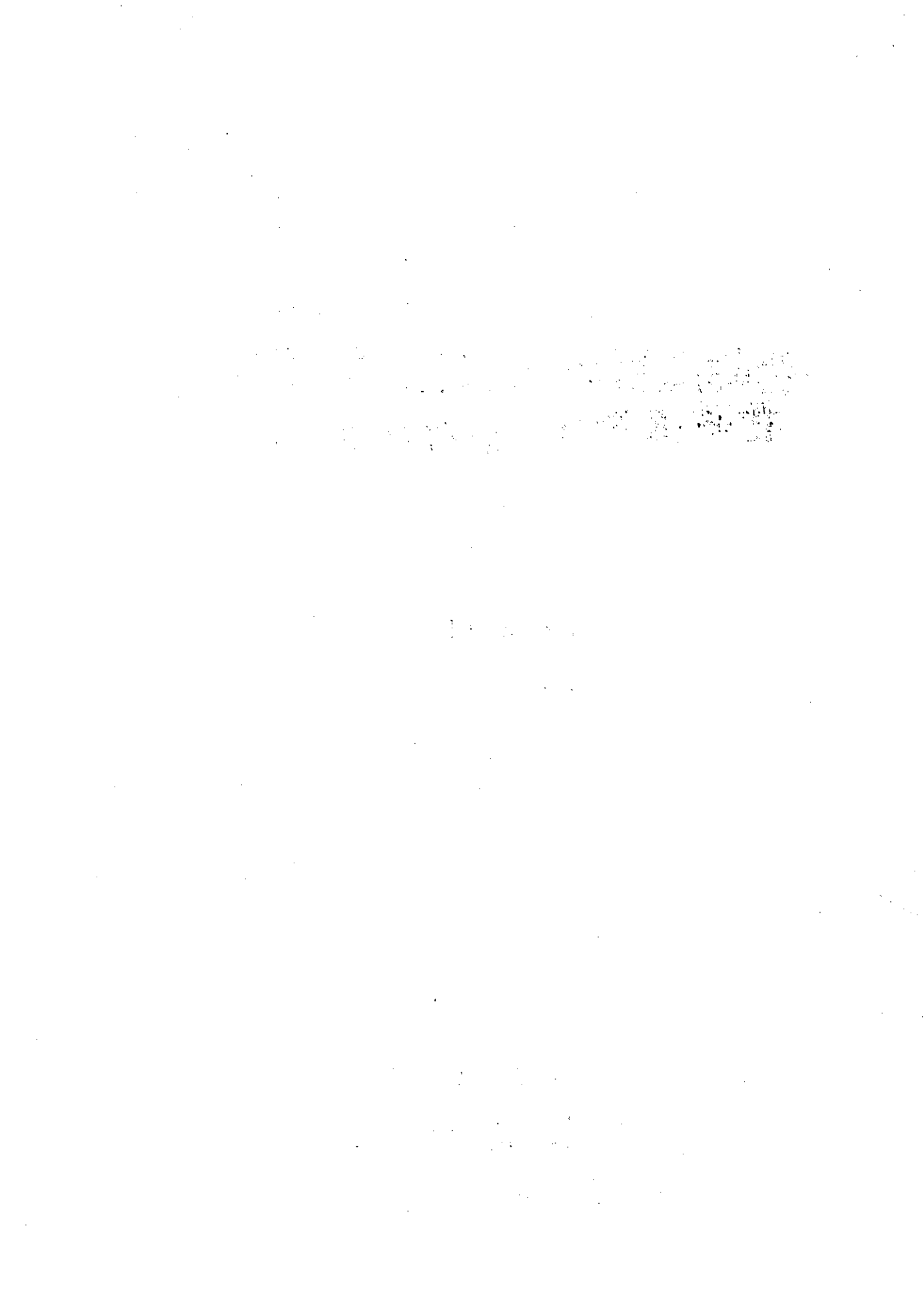


北韓風習의 變質相과 展望



419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3年度 下半期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3. 11.

研究機關：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조사연구소

研究責任者： 金 民 彩

1. 凡在本校任教之教师，均须遵守本规定。
2. 教师应按时到校，不得迟到、早退或旷工。

第三章 附则

1. 本规定自发布之日起施行。
2. 未尽事宜，由校务会议另行议定。

目 次

| | |
|-------------------------|----|
| 1. 序 論 | 3 |
| 2. 家庭生活 | 7 |
| 가. 家庭 및 家族 | 8 |
| 나. 食生活 | 9 |
| 다. 住 宅 | 12 |
| 라. 服 裝 | 13 |
| 마. 日常生活 | 15 |
| 3. 冠婚喪祭 | 17 |
| 가. 婚 禮 | 17 |
| 나. 喪禮와 葬禮 | 21 |
| 다. 祭 禮 | 22 |
| 4. 잔치 (백일, 들잔치, 生日, 回甲) | 24 |
| 5. 宗 教 | 26 |
| 6. 教 育 | 32 |
| 7. 民俗 (名節, 탈놀이, 其他) | 36 |
| 가. 名 節 | 37 |
| 나. 탈 놀이 | 38 |
| 다. 其 他 | 43 |

| | |
|---------------|----|
| 8. 娛樂 및 趣味 | 48 |
| 장 자 | 49 |
| 트럼프와 화투 | 50 |
| 바 둑 | 50 |
| 登山 | 51 |
| 旅行 | 51 |
| 読書 | 53 |
| 音樂, 映画 및 演劇鑑賞 | 53 |
| 茶房・茶菓店 | 54 |
| 9. 結 論 | 56 |
| 註 釈 | 58 |

1. 序 論

二次大戰의 종결과 더불어 解放된지 4半世紀를 넘는 동안 南北의 分断은 분명히 民族史의 断絶을 가져왔고 그것은 政治的, 經濟的, 文化的 断絶속에 二元的인 異質化를 加速시켜 왔다.

특히 歷史의 断絶, 言語의 異質化, 文化的 二元性등은 「이데올로기」의 分裂과 함께 社会構造自體의 異質的인 變化를 相乘的으로 加重시켰으며 加速시키는 結果가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지나버린 27年의 歲月은 처음에는 微細한 差異에서 출발한 것이 지금에는 時間의 經過와 더불어 그 深度를 더 해 가고 있다.

그리하여 그 結果는 「統一 그 自體도 어렵지만 그 보다 더 어려운 것은 바로 統一된 후 二個의 異質的인 性向으로 變化되어 온 社会構造가 하나로 統合 調整해야 할 경우 그 差異의 異質性에서 오는 不調整과 葛藤이 더욱 더 염려스럽지 않느냐하는 反問을 提起케 한다. //

이렇듯 지난 4半世紀란 歲月은 우리의 單一한 歷史도 同質의 文化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어 놓았으며 現實적으로 두개의 社会를 具体化시키고 말았다. 즉 北韓에서는 共產主義 思想을 더욱 투철하게 하기 위하여 民族의 고유한 文化와 生活風習을 의식적으로 파괴, 變質시켜 왔다.

이러한 狀況속에서 우리에게 「北韓學」이라 낯선 單語가 선을 보이게된 것은 극히 最近의 일이다. 그러므로 北韓에 대한 客

觀的인 研究는 황무지에서의 출발이나 마찬가지로 매우 힘들고 또한 여러 가지 애로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資料의 貧困과 研究사례 또는 없는 상태에서 研究 분위기조차 보장되지 않았던 지난 4 반세기의 냉전시대는 「8.15 宣言」 「닉슨 美國大統領의 中共訪問」과 「7.4 南北共同聲明」등으로 이제 서서히 北韓 研究에 대한 의욕이 고무되어 있음을 否認 못하겠다. 특히 韓國統一問題에 관한 國際學術會議 등은 北韓研究를 하는데 하나의 轉機를 마련한 學術會議로서 크게 評價되고 있다. 비록 그 會議가 公開的이든 非公開的이든 간에 韓國統一에 關聯된 國際的 환경에서부터 統一을 위한 方案과 展望에 이르기까지 學術회의를 통해 論議된다는 사실은 앞으로 「分斷의 私生兒」格인 北韓學에 대한 學問的 接近이 必要하다는 認識을 주는데 充分하다 하겠다.

學問에는 항상 科學적 根柢가 必要하며 科學이란 보편타당한 客觀性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要求한다. 까닭에 本研究論文의 題目인 「北韓風習의 變質相과 展望」에 있어 北韓風習에 있어 北韓風習의 變質相을 종합적으로 分析하고 그 展望을 밝힘으로써 政府가 올바른 統一政策을 展開함에 協助하는데 一翼이 되고자 하는데 있다.

이회승편 「국어 대사전」에 의하자면 風習의 뜻은 氣習이라 하였고 氣習은 다시 風氣와 慣習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慣習은 한 社会內에서 歷史적으로 發達하여 그 社会의 成員에게 一般的으로

널리 承認되어 있는 傳統的인 行動樣式이라고 뜻하였다. 한편 風俗이란 옛적부터 社會에 행하여온 衣食住, 그밖의 모든 生活에 관한 習慣이라고 定義하였다. 이 定義에 기초를 두고 便宜上 北韓의 家庭生活, 冠婚喪祭, 잔치, 宗教, 教育, 民俗 그리고 오락등으로 区分하였다.

(2)의 家庭生活에서는 北韓의 住民들이 먹고 입고 쓸 수 있는 衣食住로부터 시작하여 日常生活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記述해 보았다.

(3)의 冠婚喪祭에 있어서는 戰後세대들에 있어서는 戀愛, 結婚등을 포함한 男女간의 愛情문제에서 부터 제사, 장례식등 禮式을 약술함과 동시에 우리 와의 制度上의 差異점에 力點을 두었다.

(4)의 잔치에서는 便宜上 백일, 돌잔치, 生日, 그리고 回甲만을 取扱하였다. 北韓에서는 아이들의 百日잔치는 치루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외의 돌잔치, 生日, 그리고 回甲잔치등은 비교적 간소하게나마 치르는 것을 許容하고 있다.

(5)의 宗教에서는 최근 南北赤十字 本會談에서 北韓基督教 牧師인 康良煜과 우리 記者間의 一問一答을 中心으로 최근의 宗教人들의 동향과 宗教活動을 記述하였다.

특히 60年代에 접어 들면서부터 소위 소련을 中心으로한 東攷에 있어서는 自由化運動이 北韓의 宗教活動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面에서 의문의 餘地를 남기게 하였다

(6)의 教育에 있어서는 學齡前 유아들의 教育, 一般教育體系, 特殊

教育体系· 그리고 成人教育制로 区分하여 서술함으로써 北韓의 姿態學的인 教育過程과 靑少年들의 思想教育을 위한 手段으로서의 教育理念, 教育体系와 教育 內容에 있어서의 矛盾性과 허구성을 지적해 보았다.

특히 社會學的인 側面에서 人間의 유아기에 善惡判斷의 기준과 양심의 기초가 확립된다고 함으로써 유년시절의 成長過程에 作用할만한 戒반 不安 및 衝擊등의 變因이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를 적어 보았다.

(7)의 民俗에서는 以北 5道를 中心으로 한 代表的인 民俗 몇 가지를 紹介하였고 오늘날 北韓에 있어서 民俗이 어떻게 利用되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繼承되어 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重點을 둠으로써 固有의 民俗과의 差異點을 發見하려고 努力하였다.

마지막 章인 (8)에서는 오락 및 취미를 다루었다. 현재 北韓 社會에서 行하여지고 있는 代表的인 娛樂 및 娛樂施設등을 알아 보았고 文化生活의 方面인 취미생활을 포함시킴으로써 北韓社會의 實情을 더욱 적나라하게 描写하도록 試圖해 보았다.

2. 북한의 家庭生活

人間生活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것은 家庭生活이라고 할 수 있으며 家庭生活を 中心으로한 衣食住問題는 人間の 基本欲求인 것이다. 아늑한 가정 분위기에서 生の 보람을 누리기 위한 人間の 基本 希求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궁극적으로 追求하고 있는 目標이기도 하다.

그러나 國土의 分斷으로 同族이면서도 서로 相異한 體制下에 分斷된지 4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北韓住民의 服裝, 食生活과 家庭生活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것을 쉽게 理解할 수 있으며 이것은 集團主義的 體制下에 個人生活이란 存在할 수 없으며 오직 組織生活을 통한 個人의 思考나 行勳이 強要되고 生成되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그러므로 根本的이고도 가장 基礎的인 概念의 差異는 風習과 制度의 差異에 근원을 둘 수 있으며 經濟的인 面에 있어서 直接的인 影響을 받고 있다.

北韓에서는 「3 個年 人民경제계획」, 「1次 5 個年 經濟計劃」, 「7 個年 人民經濟計劃」등 수차례에 걸친 經濟計劃을 實行하므로써 人民의 基本的 衣食住問題를 해결하겠다고 豪言壯談 하였지만 그들의 約束과는 달리 현재 너무나 거리가 멀다.

解放後부터 實施해 오던 食糧配給制度는 더욱 확대되어 實施되었고 衣服問題에 있어서도 매우 單調하고 古루한 形式을 脫皮하지 못하는등 그들 나름대로의 衣食住問題 解決을 위해 안간 힘을

기울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 家庭 및 庭族

北韓에 있어서 家庭의 概念은 사랑과 愛情으로 결합된 生의 보금자리로서의 家庭이 아니라 共產主義 革命을 遂行하는데 必要한 하나의 組織으로서 간주되고 있다.

흔히들 家庭은 家族들의 따뜻한 보금자리로서 幸福을 지켜주는 성곽이라고들 말하지만 北韓住民에게는 이러한 성곽마저도 破壞되고 있다.

北韓의 家族法 第1條에 의하면 「家族은 社會主義 革命理論의 실습장이며 生産의 최저단위이다」라고 規定되어 있다. 그러므로 家族이 社會의 제일 重要한 核이 되어 있기 때문에 家族에 관한 의도적 概念없이는 全体社會의 改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떤 다른 領域에서 보다 家族에 대한 改革試圖가 集中되고 있다. 1)

1958년에는 모든 私有財産이 國有化, 내지는 集團化됨으로써 家庭의 所有權도 박탈되었고 1968년의 女性同盟會議에서는 처음으로 「家庭의 革命」이란 問題가 提起되었으며 “子息들을 金日成과 共產黨을 위하여 언제든지 獨숨을 바칠 수 있는 決死隊로 키우라”라”고 강조한 바 있다.

即 「家庭의 革命化」란 共同세탁소, 반찬공장 및 공농식당 등을 설치하는 제반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婦女子들을 勞動現場에 끌어 내기 위한 一聯의 手段으로 家庭生活에서 얻을 수 있는

家庭教育을 말살하고 共産黨이 직접 教育을 시키는데 궁극적인 目的이 있다. 2)

이 以外에도 男便들의 會議인 世帶主 會議와 家庭主婦들이 參加하는 人民班會議 및 家庭生活 一切를 指導한다는 口實下에 全世帶를 5戶씩 나누어서 女性黨員 한명을 배치시켜 놓고 夫婦간의 愛情問題를 包含한 모든 私生活를 감시하며 간섭하기 위한 制度로서의 「5戶담당제」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北韓의 全住民을 共産主義人間으로 改造하자라는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더 顯著하게 나타날 것이 分明하다.

나. 食生活

解放후 北韓은 食糧만은 어느정도 自由販賣를 실시해 오다가 1958年 이후부터는 食糧配給制가 實施되고 있다. 흔히 共産主義 國家에서 볼 수 있는 食糧配給制는 食糧不足에 의한 소비를 共産黨이 장악하려는 意圖外에 食糧配給制를 통한 人民의 態를 把握하고 또한 移轉이나 旅行등을 억제할 수도 있고 놀고 먹은 것을 防止할 수도 있는 多方面 目的을 遂行하는 하나의 手段으로 利用하고 있다.

「레닌」에 의하면 「共産黨이 政權을 잡은 후 그 나라 國民들을 統治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밥주머니를 틀어 쥐라」고 表現한 것은 위의 사실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으며 北韓도 例外가 될 수 없다.

解放直後부터 勞働者,事務員들에게 部分的으로 食糧配給制를 實施해오다 戰爭이 끝난 54年부터는 심각한 食糧不足으로 配給制 實施가 不可避했다.

配給基準量을 보면 重勞働者 및 有害勞働者는 하루 800 ~ 1000g이며 軍人 社會安全員 8百g, 高級관리, 當 간부, 一般勞働者, 事務員, 高等技術학교, 大學生은 7百g, 환자 6百g, 유아 1百50g 등이다. 3)

현재 北韓에서의 쌀 또는 잡곡생산량은 극히 低調한 편으로 蘇聯을 비롯한 다른 共產國家에서 매년 수십만屯씩의 곡물을 수입하는 실정이다. 비교적 山地가 많고 경지면적이 적은 原因도 있지만 休戰後 重工業 優先정책에 의해 輕工業 내지는 農業分野는 매우 不振한 상태이다.

北韓의 대부분의 家庭主婦들은 생산계획 達成에 動員되어 職場生活를 하고 있고 또 그밖에 집에 남아 있는 婦女者들을 勞動現場에 끌어 내기 위한 手段으로 都心地에 「밥공장」이라는 것을 만들어 食糧카드를 工場에 맡기고 끼니 때마다 밥을 갖다 먹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70년 11月の 「제5次 黨大會」에서는 앞으로 6個年 計劃기간에 「밥공장」을 대폭 擴張할 것을 決定⁴⁾ 하고 主婦들이 밥공장을 利用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 豫想된다.

또한 간장과 된장등의 副食에 있어서도 우리들처럼 各家庭의 기호에 따라 장만하는 것이 아니라 一般家庭에서 개별적으로 담글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오직 食料品 工場에서 加工한 것을 사다
먹기 때문에 각 가정 特有의 간장이나 된장맛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간장, 된장을 집에서 못담그게 하는 理由중의 하나는 우선 간장
된장의 原料인 콩이 米穀과 같이 알곡으로 取扱되고 있어 一般
家庭의 食糧配給에서 除外되어 있다는 것이 그 첫째 理由이며
두번째의 理由는 時間浪費를 들고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같이 「밥공장」의 대폭 拡張이니 一般家庭에서
간장, 된장등 부식을 못 담그게 하는등 한결같이 時間浪費를 억제
하기 위한 하나의 手段으로 直接 生産과 集結시키고 있는 것이다.

北韓에 있어서 女性의 勞動力은 팔목할 만한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女性이 차지하는 比重을 과소 평가할 수 없다.
그리하여 金日成은 일찍부터 女性地位向上이니 女性解放이니 하는
美名下에 婦人을 家事의 무거운 부담으로 부터 解放시켜야 한다고
입버릇 삼아 말해 오고는 있지만 實은 女性의 勞動力에 깊은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共産黨은 婦女子들로 하여금 家庭의 主婦, 아내, 어머니
로서의 役割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黨에 無限히 忠實한 革命戰
士 乃至는 勞動力의 提供者로서의 役割을 強要하고 있다. 따라서
金日成에 忠實하며 社會主義 建設을 위해 앞으로 女性의 勞動力이
더욱 더 極大化될 것이 確實施되며 副食은 漸次的으로 간장, 된장
과 마찬가지로 食料品店에서 사먹도록 制度化 될 것이 分明하다.

다. 住 宅

6.25 동란시 각공장, 학교등 큰 建物 6천동을 包含하여 約 60만棟의 주택이 파괴되어 한때 土窟生活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休戰후에도 住宅을 包含한 모든 建物은 「형식은 民族的으로 내용은 社会正義的으로 建設해야 한다」는 住宅樣式에 제한조치를 가하고 또한 일체의 건축자재를 工場建物이나 공공건물에 들렸기 때문에 住宅을 지을 수가 없었다.

그후 1956년부터 內陸地方에서 부터 海岸地方으로 주택건설이 시작되었고 농촌주택은 1961年後에 本格的으로 짓기 시작했다. 농촌의 住宅은 농촌건설대의 「1人 4世帯」운동에 의해 건설되었고 都市의 大路邊은 5~8층으로 統一된 아파트가 많으며 層數의 規制때문에 벽돌을 쌓아 올린 것처럼 질서정연한 것이 특이하다.

都市에 있는 住宅의 경우 1호에서 4호까지의 住宅과 특별주택의 5등급으로 区分되어 각직책에 따라 할당된다. 실례로 1호住宅은 방 1간과 부엌 반칸으로 一般勞動者와 사무원이 入住하며 직책이 높을수록 방의 坪數도 比例해서 넓어 짐은 물론이다. 「아파트」에는 온수, 난방시설과 수세식 변소시설이 되어 있으나 給水사정이 여의치 못해 수세가 잘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의 경우는 住宅構造나 内部構造가 同一한 방 두개에 부엌 한개씩으로 한棟에 두세대씩 거주하도록 되어 있어 集團生活에

적합하도록 집결되어 있다.

住宅建設에 있어서 個人의 設計에 의해 進行되서는 안되며 集團生活에 알맞도록 設計돼야 할 것등이 要求됐고 建築資材 一切를 個人의 손에 넘어 가지 못하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주택은 거의 存在하지 않는다.

都市에는 「아파트」나 聯立住宅이 建設됨으로써 住民의 감시나 動員이 容易하고 勞動力浪費를 減少시킬 수 있는 住宅生活의 集團化가 이룩되었고 농촌에 있어서는 농토의 整理, 擴張을 이유로 旧家屋을 처분하고 集團生活에 적합한 集團住宅으로 劃一化 하고 있다.

이와같이 住宅마저 黨에 예속화된 가족생활은 가족자체의 의사에 의해 영위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人民經濟計劃을 위한 集團的 스케줄에 따라 起食하고 勞動하는 결과를 낳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北韓은 服裝, 言語, 思想 형태의 劃一化와 더불어 生活의 「아파트」化를 기함으로써 가족생활에 대한 黨의 통제를 점점 強化하고 家庭 그 自体를 執權層의 唯一思想과 革命傳統을 학습장화 시키는데 유리한 條件이라 생각한다. 5)

라. 服 裝

1970年 11月 開催된 北韓 勞動黨 제5次 大會에서 發表한 6個年 計劃에서 이 期間중에 낙후된 輕工業을 발전시켜 人民들의 消費品 生産에 一大 革新을 피하기 위하여 72年 8월에 日用品

工業省을 新設했다.

人民의 生活水準을 向上시키기 위한 方法의 하나로 방직공업을 發展시켜 衣類事情을 호전시켜 신발 및 日用品工業을 發展시키므로써 品質의 向上이 기대되지만 北韓住民의 生活水準을 顯著히 向上시켜 준다는 사실은 이에 수반된 精神狀態의 해이, 즉 自由主義 및 復古主義 思想이 대두될 가능성을 增大시키는 結果가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현상들은 그들 社會內에서 問題視되지 않는 水準에서 住民들의 생활향상이 도모될 것이다. 6)

이러한 사실은 北韓이 戰爭을 위한 重工業 지향정책을 遂行함으로써 衣生活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服地生産이 充分치 못하기 때문에 食糧과 마찬가지로 配給制인데 一般住民, 특권층, 지역별 직장, 직종별로 配給하는 형태로 区分하여 衣類配給을 실시하고 있다. 服地配給을 받으면 그 천을 가지고 洋服店 또는 각직장에 마련돼 있는 洋服部를 利用한다.

勞働者階層의 服裝은 회색, 청색 및 국방색 계통의 作業服을 많이 입으며 사무원은 「스미에터」라고 불리워지는 우리의 학생복과 비슷한 옷을 입고 있다. 帽子는 勞働者層이 「레닌」帽, 幹部級은 중절帽를 많이 썼으나 차츰 脱帽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南北韓의 차이는 女性의 옷차림에서도 심한 隔差를 나타내고 있다. 北韓의 女性들은 洋裝을 별로 하지 않는 대신 치마저고리를 많이 입으며 게다가 職場生活때문에 作業服을 입는 時間

이 많다. 이처럼 女性들의 服裝이 매우 單調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처럼 洋裝店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男子들과 함께 職場의 洋服部를 利用한다.

그런데 特記할 사실은 최근에 와서 少女들의 洋裝하는 數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急轉하는 世界의 潮流속에서 어찌까지나 外面만 강할 수 없다는 점에서 洋裝하는 女性의 數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觀望된다.

마. 日常生活

北韓은 16歲이상 59歲(女子는 55歲)사이의 모든 住民들에게 대하여 社會運動에 參與할 것을 制度化하고 있다.

이와같은 총동원체제는 不足한 勞動力을 充當한다는 궁극적인 目的 외에 勞働을 통한 社會活動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대두되는 조직생활을 통하여 이들의 思考와 行動, 言行을 金日成 1人獨裁 體制에만 순응할 수 있도록 직접, 간접으로 規制하려는 것이다. 7)

그러므로 北韓住民의 日課는 우리와는 색다른 면이 있다. 그들은 아침 6시에 全國적으로 울리는 鐘소리와 함께 일어나 住宅과 시가지 淸掃作業에 동원된다. 이 作業에 不參하는 날이 많으면 黨員으로서 社會生活이 말썽이 되기 때문에 夜勤을 핑계로 안나가는 때가 많다.

이와같이 아침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새벽별 보기 운동」

「천리마 작업반 운동」, 「천삽 뜨기 운동」, 「허리 안펴기 운동」 등의 고된 勞勤을 強要당하는 한편 夫婦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가 提起되고 있다. 즉 커가는 子女들의 教育問題와 家庭教育問題 등을 등한히 하게 되어 靑少年들의 非行이 비일비재하다. 父母의 愛情과 家庭教育을 통한 情緒的인 面의 不足은 少年犯罪라는 커다란 社會問題로 대두되고 있다.

고된 勞勤으로 因한 또 한가지의 현상은 肉體的인 과로와 榮養失調로 國民의 健康狀態의 低下라는 악순환을 招來하고 있다. 그러므로 各직장의 出勤率은 低調하다. 그래서 北韓에서는 出勤率을 높이기 위한 手段으로서 身病으로 欠勤時에는 반드시 醫師의 診斷書를 提出해야 하며 無斷欠勤時에는 그날의 食糧配給과 俸給을 삭감당한다.

따라서 北韓 住民의 生活은 수면부족과 과로때문에 휴일이나 공휴일은 대부분 집에서 밀린 잠을 자거나 연탄을 짚거나 혹은 公園산책등으로 消日하게 된다. 旅行이나 同僚간의 來往도 별로 없는 狀態로서 폐쇄적인 社會의 단면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3. 冠 婚 喪 祭

관혼상제란 冠禮, 婚禮, 喪禮 그리고 祭禮의 四禮를 말하는데 대개 禮라는 것은 그 時代와 그 民族에게 맞는 것이라야만 한다. 또한 그 나라의 政治形態와 社會構造에 따라서도 달라지며 따라서 禮法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北韓은 1955년에 冠婚喪祭 간소화운동을 展開하고 소위 허례허식을 없애고 물질낭비와 時間낭비를 방지한다는 口實下에 이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加함으로써 우리의 禮法과 전혀 性質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四禮중에서 冠禮는 일종의 成年式을 거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時代의 變遷과 함께 近來에 와서는 南北韓 할것 없이 우리 生活에서 이 慣習은 거의 사라졌다.

가. 婚禮 (연애, 약혼, 결혼, 이혼 포함)

흔히 말하듯이 건전한 연애란 어디까지나 理性的인 判斷 밑에 스스로의 경우를 잘 생각하고 건실한 생활을 營為할 수 있는 확고한 設計가 선 이후에 서로가 마음으로부터 尊敬하고 信賴할 수 있는 相對者를 選擇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北韓에 있어서의 연애의 概念은 人間 본연의 姿勢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感情의 發露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共産黨이란 그림자가 結婚까지를 強要하고 있다. 그러므로 연애를 하다가 結婚을 하지 않으면 낙인 찍혀 批判의 對象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公開的인 연애보다는 프로 밤에만 비밀리에 연애를 하고 있다. 公開的으로 연애를 할려면 自己가 屬하고 있는 組織의 責任者에게 .00와 연애를 하려 합니다라고 申告를 해야한다. 비록 상대자가 結婚할 수 있는 연인이라 할지라도 公開的으로 손이라도 잡고 다니면 그 모습이 만화로 그려져 壁報같은 곳에 揭示되며 방탕한 行爲라 하여 이 역시 批判의 対象이 된다.

女大生の 경우 卒業前에 大部分이 愛人을 갖게 되는데 만약 結婚前에 임신하게 되면 즉각 退學을 당하며 勞動職場에 배치되므로 아이를 낳아서 秘密리에 殺害하거나 유기하다가 殺人罪로 拘束되는 例가 許多하다.

婚禮는 一生의 반려자를 揀하는 神聖한 禮式이므로 相對方의 人格과 健康狀態, 學識, 家庭環境등이 考慮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相對者의 成分과 職場을 優先的으로 選擇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約婚式은 女子집에서 간단하게 치루게 되는데 主禮者가 참석하여 正式約婚式이 成立되었음을 宣布한다. 사주往來나 궁합을 보는 일이 없으며 식은 休日이나 公休日에 하는 것이 通例로 되어 있다.

結婚은 男子는 만 18세, 女子는 만 17세가 되면 할 수 있지만 男子의 경우 兵役을 필하고 大學을 卒業하게 되면 30歲를 前後한 年令이 되어 대체로 男子는 25 ~ 30歲 사이고 女子는 22세 전후이지만 女性의 急激한 社會進出로 比較적 結婚年齡이 늦어지는 傾向이 있다.

南韓처럼 專門으로 하는 禮式場은 하나도 없으며 주로 職場구락부나 會議室등을 利用해서 舉行하게 되는데 正面에는 반드시 金日成우상화 政策의 一環으로 金日成의 초상화가 걸려 있어야 한다.

結婚式 복장은 남자의 경우는 洋服이나 國民服을 着用하며 新婦는 검정치마와 흰 저고리를 입고 면사포를 쓰기도 한다. 新郎은 가슴에 生花 또는 造花를 단다.

62年이전에는 新郎 둘러리 두명과 新婦 둘러리 두명이 따르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에 와서는 꽃바구니를 든 어린 女兒 두명의 둘러리를 앞세우고 新郎 新婦가 함께 入場한다. 主禮는 社會團體幹部에 의해 이루어 지는데 主禮辭를 통해 「結婚의 因緣이 黨과 首領에 의해서 이룩된 것임」을 強調하고 「黨과 首領을 위해서 革命과업 遂行에 헌신적인 努力을 하라」⁸⁾ 는 취지의 내용을 늘어 놓는 것이 보통이다.

특이한 현상으로는 結婚式은 생산적인 행사로 간주하며 따라서 약간의 쌀과 술을 특배해 준다. 그러나 신혼여행은 금하고 있다. 동성동본간의 결혼은 법적 제한이 없으나 8촌이내의 사이면 結婚을 금지하고 있으나 호적제도가 철폐되어 족보를 알 수 없으므로 근친간의 結婚가능성은 계속 증가된 상태에 있다.

北韓의 男女平等權에 관한 法令제 5조에 의하면 結婚生活에서 부부관계가 곤란하고 따라서 夫婦關係를 더이상 계속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여성들도 男子와 동등의 自由理論의 權

利를 가진다. 즉 母性으로서 전 남편에게 아동 양육비를 요구할 소송권을 인정하며 소송은 인민재판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9)

이와같이 여성들도 男子와 같이 離婚할 권리가 있으며 반드시 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상대방의 불임증 또는 성격상의 문제 등은 離婚條件의 成立對象이 되지 못하고 있다.

雙方 合意 離婚의 경우는 자기가 속한 機關이나 단체에 사전에 그 사유를 제시하여 승락을 받아야 한다. 만약 승락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雙方이 合意를 보았다 하더라도 合法的인 離婚이 될 수 없고 離婚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이와는 반대로 政治的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發生하였을 때에는 党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강제 離婚을 권고하는 수도 있다 例로 犯法者의 경우가 이에 속한다

北韓에 있어서 離婚率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그 理由는 黨員이 離婚을 할려면 출당조치를 각오해야 하며 비당원의 경우에도 共產黨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많은 소송비용이 들기 때문에 離婚 소송을 法院에 제기하기 어렵다.

위에서 미루어 보건데 北韓社會는 集團主義的 體制인 만큼 전통적인 家庭單位의 생활은 단순히 北韓의 全体主義的 組織生活를 영위하기 위한 하나의 생활 방편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이같은 根本的이고도 가장 기초적인 家庭生活에 대한 概念의 差異는 우리의 家庭生活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래서 結婚은 그들은 소위 革命事業 完遂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參與의 契機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 選擇에 있어서도 成分을 주로 선택의 基準으로 삼고 있음은 理解할 만하다.

나. 喪禮와 葬禮

喪禮는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로 故人을 보내는 슬픈 심정을 유족들이 마지막으로 表現하는 것을 말하는데 北韓에서는 이러한 節次들이 消費的이며 非生産的인 行事라 하여 冷待를 받고 있다.

대개 2~3日장을 원칙으로 하며 의식에 있어서도 宗教가 말살된 까닭에 宗教의식은 일체의 生活에서 根絶됐다. 장례식에 있어서도 양초, 종이 使用되지 않으며 비석도 세우지 않는다. 10)

印刷物에 의한 부고장은 만들 수 없고 보통 엽서, 면담, 電話로 死亡을 알리는 정도다. 상복은 都市에서는 돈을 주고 빌려 입을 수 있지만 直系喪主만 着用하며 방계의 親知는 진을 쓰거나 팔에 완장을 두른다. 조객들에게 간단한 食事나 주안을 제공하는 것은 許諾하나 조금이라도 지나쳤을 때는 비판의 對象이 되기 마련이다.

北韓에서는 伝染病으로 死亡한 者에 限해서 火葬을 하는 외는 土葬을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葬禮式은 都市에서는 葬儀協同組合이나, 都市綠化事業所內에 장의부가 있어 葬禮를 치르

게 된다. 농촌에서는 家庭 또는 自己가 속해 있는 職場에서 치르게 된다. 南韓에 있어서 선산제도는 北韓에서는 전혀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든 시체는 共同墓地에 安葬된다.

死亡申告는 死亡日로부터 洞 人民委員會를 거쳐 3日 以内に 死亡申告를 提出해야 하며 만약 期間을 어기면 罰金을 내게 된다. 이때 死亡진단서와 死亡者의 公民証을 갖고 社會安全部 公民登錄課에 申告하면 公民生徒 名簿에서 삭제된다

다. 祭 禮

北韓에서는 제사는 純消費的인 行為이며 제사를 빙자하여 遠距離에 있는 家族이나 친척이 職場이나 農場을 떠나면 그만큼 勞動에 支障을 招來한다고 하여 억제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사일에 모이는 사람은 같은 씨족임으로 씨족관념 즉 宗派主義를 助成할 우려가 있으며 共産黨을 비방할 가능성이 있다 하여 또한 억제하였다. 11)

그러나 1961年 이후에는 제사를 지내는 것을 許容하기 시작하여 正月 初하루는 都市, 農村 모두 이틀간 休暇가 주어지나 8月 秋夕의 경우는 農村에서만 하루의 休暇가 實施되며 이 두 名節의 제사는 社會主義的 內容의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社會主義的 內容의 제사라 함은

첫째로 절을 해 봐야 절 받는 사람이 없고
두번째로 음식을 차려 놔도 먹는 사람이 없으니 차리지 말것, 그리고

세번째로 동네의 옛어른 親旧들을 한 자리에 모아 亡人の 性格生活 社会主义 建設에 대한 공로를 찬양함으로써 살아 있는 사람들과 자라나날 子孫들의 思想性을 고취시키도록 하는 것등¹²⁾ 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祖上の 墓所參拜는 계속 許諾되지 않다가 1967년에 金日成의 어머니 墓所 參拜運動이 展開되면서 부터 一般住民에게도 秋夕날 하루는 祖上墓所 參拜를 許諾하였으나 그것도 死後 3年以内に 限하여 參拜할 수 있다고 制限하고 있다.

4. 잔치 (백일, 돌잔치, 생일, 회갑)

近代的 말로는 宴會를 뜻하는 것으로 잔치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음주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물론 음주할 때는 술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안주도 먹으며 국수와 떡 기타 음식물도 나누어 먹는다. 그러므로 초상때는 비록 음식을 먹으며 주인을 위로하지만 이것은 宴會라고는 할 수 없다.

北韓에서는 어린애가 태어났을때 아이들이라고 해서 득남주를 낸다든가 혹은 아이가 성장해서 백일이 되었을 때에 백일잔치등을 베푸는 것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이가 출생한지 만 1년이 되면 걷기도 하고 말을 할려고 지껄인다.

전에 비하면 매우 재롱등이가 된다. 그래서 돌잔치만은 간소하게나마 차리는 것이 통례이다. 이날은 어린이에게 때때 옷을 해입히고 있으나 금반지, 은수저 또는 밥공기 등 선물을 해준다는 것은 역시 금하고 있다.

생일잔치만은 비교적 뜻깊게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어른의 경우에는 친척이나 친구들이 모여 간단하게나마 저녁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許諾하고 있다.

합숙소, 휴양소, 심지어 여관에 투숙하였을 때에도 축하의 음식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차려주는 것은 그 職場이나 소속책임자들의 하나의 任務로 되어 있다.

金日成의 生日은 4月 15日로서 公休日처럼 休務는 하지 않았으나 거족적으로 生日날을 展開하며 소년단원들에게는 약간의 선물이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肉類配給도 하고 있다. 이날을 前後하여 각 學校에서는 만경대(金日成의 生家), 조선혁명박물관 또는 보천보 등지의 견학이 활발히 展開된다. 13)

60세가 되면 6旬잔치 또는 回甲잔치를 차리게 마련인데 北韓에서도 이 잔치만은 다른 잔치에 비해 성대하게 차리도록 장려하며 아내는 각처에 흩어져 있는 자손들이 한데 모여 하루를 즐긴다.

소속된 직장에서는 얼마간의 축의금을 거두어 부조하며 친척이나 친구들이 모여 축의한다. 손님접대를 위해 음식을 차리지만 낭비 현상이란 비난을 받지 않는 한도내에서 간소하고 조촐하게 차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人民軍 後方家族, 모범노동자, 모범농민에 대해서는 유치원이나 인민학교 아동들을 동원해서 꽃다발을 주게 하고 노래와 춤으로 위로해 주는 예도 있다.

5. 宗 教

共産主義는 宗教를 否定하고 唯物論을 信奉하지만 共産主義者가 共産主義를 대하는 태도는 거의 宗教的이요, 信仰的이다. 오늘날 共産主義는 共産主義者에 대해서 神없는 地上의 現實宗教가 되고 있으며 그것은 宗教아닌 宗教요, 信仰아닌 信仰이다.

北韓 憲法第 14 條에는 「公民은 信仰 및 宗教의식의 自由를 가진다」라고 明文化 하고 있으나 政策的으로는 公公然히 宗教를 말살하고 있다. 「宗教는 아편」으로 여겨 이를 억압하고 있는 北韓宗教 政策은 勞動黨 出版局에서 1959 年에 發刊한 「우리는 왜 宗教를 反對해야 하는가」라는 책자속에서 集約되어 있다.

즉 「北半部에 아직 남아서 준농하고 있는 一部 악질 宗教人들이 宗教라는 간판밑에 反革命的인 行爲를 조작하여 宗教的 思想을 우리들 머리속에 부식시키려는 企圖에 철저히 鬪爭하여야 한다」고 宗教 탄압의 한면을 드러내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모든 宗教人들은 악질 宗教人들과 同一視하고 모두 反革命分子라고 速斷하는 것은 옳지 않다」¹⁵⁾ 라고 단서를 붙이고 있다.

즉 宗教人을 一律的으로 敵對視 하지 말고 黨을 따르고 社會主義 建設을 支持하는 宗教人들을 꾸준히 啓蒙, 教養하므로서 점차 事物에 대한 옳은 認識을 가지고 宗教를 스스로 버리도록 勸導해 주어야 한다는 회유작전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一聯의 조치는 宗教를 가혹한 탄압과 抑壓만으로 말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共產主義者들은 地下組織에 의한 反抗勢力보다는 차라리 어느 한도내에서 일단 노출시켜 有事時에 일망타진 하는데 容易하게 하고자 하는데 그 目的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北韓은 解放後부터 6.25 動亂前까지는 宗教의식을 禁止하면서도 그렇다고 聖堂, 禮拜堂, 그리고 사찰등 各種 宗教施設은 沒收하지 않았으나 動亂중과 休戰後에는 制限政策에서 단압정책으로 轉換, 動亂중에 파괴된 宗教施設의 復旧를 일체 없앴을 뿐만 아니라 既存의 施設까지 沒收하여, 工場, 탁아소 또는 協同組合과 같은 公共場所로 專用토록 했다.

또한 宗教의 말살정책을 遂行하기 위해 強制勞動과 洗腦教育을 實施하고 있다. 一例로 教育過程에서 어린이들을 철저한 無神論的 정신무장을 시킴으로써 宗教와 因縁을 끊도록 주의깊게 教育을 시키는 한편 宗教를 非科學的 迷信으로 인식토록 하기 위해 科學의 概念부터 注入하고¹⁶⁾ 있다.

그리하여 結果적으로 宗教라는 것은 두려움에서 나온 환상이며 또한 階級社會에서 搾取와 학대에 지친 奴隸들이 現實을 否定하고 來世에 希望을 거는 唯一한 手段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自然의 神秘는 科學의 힘에 의해 泯滅되고 또한 搾取階級이 없는 社會가 이룩될 오늘 宗教란 무가치하며 따라서 科學의 원수요 人間에 대한 아편이라는 論理를 내 세우고 있다.¹⁶⁾

이러한 論理를 뒷 받침한 証拠로서 北韓이 基督教 指導者로

알려진 강양욱은 우리 記者와의 一問一答에서 北韓에서는 자라나는 世代들에게 宗教란 무엇이며 우리는 왜 宗教를 反對해야 하며 또한 왜 우리들은 科學으로 武裝해야 하는가? 宗教나 迷信을 없애려면 우리 黨員들은 어떻게 鬪爭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등을 계속 학습, 토론시키므로서 宗教의 害毒성을 철저히 인식하도록 努力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狀況속에서도 信仰心을 가진 사람들은 2~3명씩 秘密리에 예배를 보다가 摘發되어 체포된 信徒들의 數는 1956년에 2만餘名이나 되었다고 한다.

사실 해방전에 있어서의 北韓의 종교활동은 南韓보다 더욱 활발했으며 종교활동의 요람지라고도 할 수 있었다. 즉 기독교는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 北韓에 서부터 시작되었고 따라서 교세 확장 또한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 졌다. 그러므로 평양은 우리나라에 있어 기독교의 「메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北韓의 기독교영향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천도교 역시 北韓地域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布教되었기 때문에 過去 천도교의 影響 또한 강한 것이었고 佛敎에 있어서도 금강산과 묘향산등 이름난 여러 산에는 寺刹이나 庵子가 많아 그곳에서 수도하는 승려들의 수도 상당히 많았다. 이렇듯 해방전의 北韓 지역의 종교활동은 팔복할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바 金日成의 獨裁政權이 樹立되면서 北韓의 宗教는 金日成 우상에 대한 忠僕으로서의 신앙분ियो 그 이외에 어떠한 信仰도 反抗勢力으로서 탄압과 暴政의 對象이 되어

왔다.

外形적으로는 憲法第 14 條에서 信仰 및 宗教의식거행의 自由를 규정하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信仰의 自由를 상징하는 「基督教聯盟 中央委員會」, 천도교교인들로 조직된 「천도교 청우당」, 그리고 「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등이 있어 마치 自由스럽게 宗教를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政治적으로는 公公연히 宗教를 말살하려고 하고 있음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최근 日刊新聞에 公開된 바 강양욱은 「기독교인들간에 모이는 일이 있는가」라는 記者質問에 대해 그런 일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방에서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 또는 기독교인수나 예배당에 대한 질문에는 「教會堂은 파괴됐고 信仰을 포기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져 누가 信徒인지 알기 곤란하고 개별적으로는 혹시 있는지 모르겠다」는 등 아주 모호한 대답으로 미루어 보아 北韓에는 教會가 하나도 없고 따라서 宗教란 存在할 수 없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宗教 그 자체는 없다할지라도 宗教人과 宗教를 원하고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지난 7月 15日 KAL빌딩에서 있었던 「교회지도자 세미나」에서 北韓에서도 현재 소수의 비밀지하교회가 있다는 것이 판명됨으로서 宗教活動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이유의 하나로서 1960年代의 中・蘇 분쟁의 틈바구니에서 蘇聯을 중심으로 한 東歐에 있어서의 自由化

운동이 北韓의 종교탄압정책에 다소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東歐共產國家들과 蘇聯社會에 있어서 信仰生活은 비교적 自由로우며 최근에는 성탄절행사가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實情이다. 「체코」의 수도 「부다페스트」와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는 신학대학교 입학 지원자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共產主義國家에 있어서 이러한 自由化의 運動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 방향에서 北韓地域에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 하나는 위에서 言及한 바 蘇聯을 비롯한 東歐共產國家들에 의해 이루어 졌고 또 다른 하나는 1959年 12月에 있는 在日 교포의 첫 北送船이 淸津港에 도착하면서부터 日本의 生活樣式과 宗教的 믿음의 전파 및 海外留學生들에 의해 北韓의 폐쇄주의가 비판적으로 評價되고 그 도피처를 宗教에서 찾으려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우기 70年代에 접어들면서 「美·蘇 정상회담」 「北京會談」 등 세계평화조류에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으며 따라서 걸로로나마 호응하는척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南北赤十字會談 등으로 信仰의 自由는 어느 하늘 어느 깃발아래서도 人間의 基本權으로 절대 保障되어야 하며 信仰의 自由는 良心의 自由와 영혼의 自由로서 宗教活動을 抑壓하는 행위는 낡은 時代의 遺物로 간주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北韓에 있어서도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宗教에 대한 말살정책으로 부터 어느 정도 융통성있는 정책변화가 불가피할 것 같다. 그러나 아직은 宗教勳向이라든가 宗教人에 대한 活動狀況에 관한 확실한 資料가 제시되고 있지 않아 무엇이라고 속단을 불허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70年代에 있어서 宗教의 어떠한 週期的인 變化를 期待한다는 것도 매우 성급한 判斷이 아닐 수 없다. 말하자면 北韓社會의 構造的 變化에 따라 시서히 그리고 매우 조심성있게 宗教에 대한 勳向도 나타날 것으로 展望된다.

6. 教 育

北韓 憲法 제3장 文化 제39條에 의하면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原理를 具顯하여 後代들을 社會와 人民을 위하여 鬪爭하는 堅決한 革命家로 知德體를 갖춘 公산주의적 새 人間으로 키운다」¹⁹⁾ 라고 明文化함으로써 北韓의 교육정책은 公산주의者를 養成하는 것과 公산주의 社會生活에 適用할 수 있는 人間改造에 力點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金日成自身이 公산주의의 「人間改造 運動」을 답습한데 不過하지만 궁극적인 目的에 있어서는 金日成을 偶像化하고 英雄化하고 神格化하기 위한 手段으로 利用되고 있는 것이 分明하다. 따라서 公산주의 人間이란 公산주의적으로 배우고 公산주의적으로 일하고 公산주의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規定지을 수 있겠다.

그러한 人間으로 교양, 改造하는 것이 黨事業의 第1次的 任務라고 하였고 그것은 人間을 하나의 틀에 박힌 機械로 만드는 것으로서 人間에게서 個性과 自由와 獨立과 創造와 人格을 박탈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거기에는 思考와 비판의 自由가 없고 오직 人間機械가 存在할 뿐이다.

다시 말해서 人間の 自由를 第2次的인 現상으로 보는 유물변증법적, 原理하에 주어진 思想體系와 圖式化된 知識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두뇌염색과 세뇌성에 重點을 둔 一種의 思想講座에 不過하다.

이러한 教育理念과 정책을 具顯하기 위하여 北韓의 教育은 全生活의 領域에 걸쳐 實施되고 있다. 즉 탁아소와 유치원 비롯한

学令前 教育에서 부터 学校教育, 党 学习会, 직장 学习会, 再教育, 각종 集会와 声讨会, 自我批判, 相互批判, 個別忠告등에 이르기까지 실로 방대한 것을 반복 교육하고 있다.

어린이가 탄생하여 77日간의 出生休暇가 끝나면 탁아소에서 부터 시작해서 5~7세가 되면 유치원에서 그들의 유아時節을 보내므로서 가정적인 父母의 情보다는 오히려 全体人民의 아들딸로서 또는 党的 아들딸로서 자라게 된다.

그리고 人民学校 3学年에서 中学校 2년까지는 少年團의 조직생활과 中学校 3学年부터 만 27세까지는 사로청 생활을 하므로서 多方面으로 發展된 自己비대로의 새로운 型의 人間創造를 劃策하고 있다.

즉 보다 徹底한 共產主義 型의 人間創造를 위해 1967年 4월에 教育制度를 全面改編하여 9年제의 義務教育이 實施된으로써 共產主義的 人間形成에 重要한 契機를 마련했다.

教育体系는 變態學的인 学令前 教育体系로 부터 一般教育, 特殊教育, 그리고 成人教育 体系등 4가지로 大別할 수 있다.

学令前 教育은 탁아소에서 부터 유치원에 이르는 教育으로서 그 目的은

① 集團主義 生活

② 어머니의 노동력 凶謀

③ 金日成의 思想양양등으로 볼 수 있는 이 学令前 教育은 6.25 動亂후 부터 觀心의 対象이 되었다.

그리하여 1965년에는 12,890個의 탁아소와 유치원이 생겼고

그 다음해인 1966年 10月에는 무려 23,251 個所에 87만 7천명이
受容된 것으로 集計되고 있다.

北韓의 유아들은 이미 이때부터 「金日成 아버지」 또는 「어머니
黨」이라는 말과 함께 노래, 무용, 그림 그리기, 초보적인 한글 읽
기와 숫자 찾기 등을 배우게 된다.

노래는 물론 金日成을 찬양하며 숭배하는 내용이며 무용도 金日
成의 抗日鬪爭 당시의 모습을 再演하거나 社會主義 思想을 고취하
는 내용이며 그림 역시 金日成의 빨치산 鬪爭記錄을 엮은 그림책
을 利用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쟁놀이」라 하여 政治部에서 내용을 검토받은 뒤 北
韓의 英雄的인 鬪爭을 演出하거나 軍事유희에 集中하고 있다.

一般教育 体系는 人民學校가 4年, 中學校가 5年, 高等學校가
2年, 大學校가 4年, 그리고 研究院(大學院)이 2~4年으로 되어
있다.

特殊教育 体系는 天才教育이라 하여 出身成分이 좋은 특권층의
子女들과 유치원이나 人民學校에서 남달리 특출한 才質의 소유자
중에서 個人의 思想動向才質과 성품등을 관찰 評價하여 黨에 忠實
하고 앞으로 發展性이 있다고 判斷된 어린이들만이 入學할 수
있는 學校다.

그리고 成人教育 体系는 근로자학교 2年, 근로자 中學校 3年,
高等技術學校 3~4年으로 되어 있으며 文盲者를 초급중학교 程度
의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기 위한 教育이다.²¹⁾

이러한 教育体系는 어디까지나 자라나는 世代들에게 思想教育을

하므로서 변증법적 唯物史觀에 立脚한 과학적인 世界觀을 定立하여 党的 唯一思想에 기초한 党性 및 階級性을 注入하는데 意義가 있다고 보겠다.

北韓의 思想教育이 왜 金日成 偶像化의 政策을 것처럼 강조하는가? 하는 하나의 決定的인 理由는 金日成을 北韓共產主義의 精神的 求心原理로 삼으려는데 있다. 그리하여 그를 中心으로 움직이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思想과 行動의 歸一原理로 만드려는 것이다.

이렇게 北韓의 共產社會는 나날이 1人獨裁 權力社會 體制로 굳어져 가고 있으며 對南 武力侵略을 위해서 이러한 思想教育을 더욱 強化할 것임은 疑心의 餘地가 없겠다. 이러한 時点에서 우리도 이 冷嚴한 政治現實을 直視하면서 統一을 위한 우리의 民族的 自由力量을 더욱 公高히 다져야 하겠다.

7. 民俗 (名節, 탈놀이, 其他)

5千年을 같은 同族으로서 같은 生活터전과 風俗속에서 살아 온 터이지만은 近 30年間的 극단적인 北韓의 社會體制는 우리의 傳統民俗을 너무나도 크게 變質시켰다.

그러나 유구한 전통속에서 우리 몸에 배인 우리의 固有民俗을 그들이라고 하여 하루 이틀에 그렇게 쉽사리 말살할 수는 없을 것이며 언젠가는 南北間의 交流가 이루어 질때는 무어니 무어니 해도 같은 同族으로서의 감회를 불러 일으키게 하는 것이 民俗일 것으로 생각된다.

① 北韓은 6.25前後, 50年代까지는 民俗에 대한 것을 一切 묵살해 오다가 60年代 이후에 들어와서 階級的 立場으로 보아 자기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것에 대하여 극히 制限된 範圍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현대적 감각에 맞추어 변질시켰다.

② 例를 들면 농악은 하나의 藝術로서 뜻을 밝고 藝術을 政治的 宣傳效果를 고취하기 위해 利用하고 있다. 이렇듯 그들은 民俗뿐만 아니라 풍습관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史的 唯物論的 立場에서 판단하여 [프로레타리아]의 아닌 옛 봉건, 귀족사회의 유물로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즉 北韓에서는 傳統民俗 自体가 北韓의 共產主義를 바탕으로 한 政治的 目的에 使用되고 있기 때문에 民俗 自体가 政治目的에 利益을 줄 때만이 許諾하며 그렇지 못할 境遇에는 없애 버리는 政

治的 手段으로 利用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民俗學에 대한 一般的인 理論이나 개념같은 歷史的 뒷 받침은 거의 하지 않고 다만 근로자들이나 대중들에게 어떻게 共產主義者로 教養을 하느냐 하는 의미에서 상투적인 原則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22)

가. 名 節

強力한 權力을 背景으로한 劃一的 社會主義 建設에의 강렬한 要求는 各種 名節까지도 그 波及效果를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北韓에선 正月 初하루와 8月 한가위 外의 名節은 이제 伝說로만 남게된 대신 새로운 名節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른바 「社會主義 建設에 의해 改編되고 變型된 代表的인 것으로는 5月1日의 「메이 데이」를 손 꼽을 수 있다.

우리 伝來의 名節中 北韓에서 認定되고 있는 正月 初하루는 都市·農村 모두 이틀간 休暇가 주어지며 8月 秋夕의 境遇는 農村에서만 하루의 休暇가 주어지는데 이날 하루는 死後 3年以內의 祖上墓所를 參拜하도록 허용되고 있다.

(北韓은 1946年 土地改革때에 이미 門中土地라는 것을 모두 沒收하였기 때문에 단오, 한식이라든가 10月시제와 같은 名節은 없애지고) 그 代身 勞動法令 제11條에 의거하여 每年 1月1日, 3月1日, 5月1日의 「메이 데이」 8.15해방, 그리고 北韓의 創建日인 9月9日을 새로운 名節로 規定하고 있다. 그런데 이중에서

도 3·1節과 8.15光復節은 최근 主体性 確立이라는 의식을 고취시킨다는 理由로 점차- 퇴색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9月9日의 朝鮮人民共和國 創建日과 金日成의 生日날 겸 朝鮮勞動黨 創黨日인 4月15日은 그 어느 名節보다도 더 호화롭고 意義깊게 지낸다. 23)

특정한 名節에 實施하던 固有 民俗놀이는 없어져 농악은 하나의 藝術活動으로, 「메이 데이」와 9.9節은 劇場 또는 野外에서 公演을 갖게 되며 널 뛰기는 曲芸의 한 종목으로 그네 뛰기와 팔쓰기는 民俗體育의 競技種目으로 格이 높아져 大衆性이 많이 흐려졌다. 그리고 이러한 行事は 무슨 名節날에 局限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體育大會를 열어 開催하는 것이 常例로 되어 있다.

나. 탈 놀이 (북천 사자놀이, 봉산탈춤, 강령탈춤)

北韓에서 風俗에 따르는 民俗놀이는 근본적으로 없어지고 우리 韓民族의 固有한 風俗으로 뼈에 젖어 어쩔 수 없는 것은 體育이나 「서클」公演을 통해서 하며 특히 民俗무용 같은 것. 즉, 봉산탈춤이라든가 사자놀이 강령탈춤 같은 것은 그 지방의 職業同盟이나 農業協同組合, 學校같은 곳의 한 「서클」에서 자기네 地方的인 特性인 무용등을 가미하여 實施하고 있다. 24)

北韓은 탈 놀이의 由來를 新羅때 나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친 한 少年의 죽음을 슬퍼한 新羅사람들은 그의 愛國心에 감동되어 그를 길이 추모하기 위하여 그의 얼굴을 본만 탈을 만들어

쓰고 칼춤을 춘 것이 그 始初라고 한다.

따라서 탈 놀이가 다만 놀이 때에 흥을 돋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 또는 싸움터에서 그 어데서나를 막론하고 사람들을 투쟁으로 고무하며 勇敢性和 英雄心으로 품게 하기 위한 하나의 手段으로 利用되었다고 主張하고 있다.

北韓에서는 또한 탈 놀이가 李朝 후반에 들어 서면서 社會의 階級的 모순이 더욱 尖銳化되고 封建 支配階級에 대한 人民들의 증오라 반감이 날로 높아 감에 따라 탈놀이는 자기의 階級的 色彩를 선명하고 強하게 띠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탈놀이는 人民들이 統治階級에 대한 自己들의 憎惡와 야유를 무대위에서 마음껏 부릴 수 있는 놀이로 發展하였다고 또한 主張하고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같이 「社會의 階級的 모순」, 「封建支配階級에 대한 人民들의 憎惡와 反感」, 「人民들이 統治階級에 대한」, 「勇敢性和 英雄心으로 품게」등 北韓 共產主義 社會에서 흔히 使用되고 있는 用語들이 羅列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탈 놀이의 趣旨가 그렇지 않음을 充分히 엿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北韓에서 傳承이 뚜렷한 代表的인 몇개의 탈·놀이로서는 함경남도 북청의 사자놀음, 황해도의 봉산 탈춤과 강렬탈 춤 들 수 있다.

1) 북청 사자놀음

新羅의 사자춤이 傳承된 곳은 統營左水營등 全國 守備처에 達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명백하게 民族的으로 僻邪進慶의

思想을 傳承한 곳은 咸鏡道 북청의 사자 놀음이다. 25)

원래 이 사자 놀음이란 正月 보름날 저녁에 행하는 놀음으로써 그 주 目的은 僻邪進慶과 민중오락으로 벽사할 만한 힘을 가진 사자가 맹렬한 姿勢로 內度에 들어가서 邪鬼를 쫓고 태평을 비는 意味에서 응분의 錢穀을 출연하기 위한 놀음이다.

이들 사자춤은 보통 두 사람이 사자의 탈을 쓰고 前身과 後身을 맡아 통소, 장고, 소북등의 반주하에 사령, 격쇠, 양반, 두동, 줍새등이 한 무리가 되어 家家戶戶를 訪問, 집마당에 들어서 난폭한 걸음 걸이로 난무를 한뒤 방문을 열고 방안에 있는 어떤 惡鬼를 잡아먹는 시늉을 한뒤 다시 마당으로 나와 한바탕 춤을 추는데 이때 구경군보다 먼저 사라지면 그 집에선 一年內內 닥쳐올 운화를 막아 준다는 代價로 錢穀등을 출연하게 된다. 이때 이 놀이를 主催한 側은 각 가정으로 부터 출연된 전곡을 部落單位의 공사업에 使用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北韓社會는 신라 시대 부터 1천년이상 傳承되어 온 우리의 固有 民俗놀이를 그들의 口味에 맞도록 示威行進을 하거나 보고大會를 함으로써 옛날처럼 북을 치고 평가리를 두들기며 흥취속에 사로 잡히던 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불리워지는 노래도 가사를 바꾸어 「프로레타리아」革命的인 것으로 부르게 하고 있다. 26)

北韓은 북청 사자놀이를 變質시켜 「탈춤과 우스꽝스러운 才談으로서 兩班統治階級の 탐욕과 惡德을 신랄하게 폭로하는」劇의 줄

거리를 構成, 북청 사자놀이가 갖는 本來의 意圖인 「惡鬼除去」
를 떠나 그들의 共產政策을 實現하기 위한 宣傳道具로 利用하는
불과한 實情이다. 또한 착취자에 反對하고 民族文化유산을 傳承한
다는 目的으로 굳이 民俗의 意義를 曲解하게 하고 있으며 그 놀
이의 體制도 사뭇 變質된 것이다.

2) 봉산 탈춤

봉산 탈춤은 황해도 봉산 旧邑에서 발달한 假面 무용극으
로 高麗末에 完成하여 約 5 백餘年 傳承되어 오는 것이라고 民俗
學者의 一部는 보고 있다.²⁷⁾ 봉산 탈춤이 全盛期를 맞이한 것
은 19 世紀末부터 20 世紀初 이래의 일이며 특히 日帝時代의 일
이라고 한다.

봉산 탈춤의 時期는 음력 4月 초파일과 端午사이에 베푸는 年
中 行事로 이 춤 求見을 하기 위해 당일은 물론 전날부터 四方
인근지방으로 부터 구경꾼들이 몰려와 혼잡을 이루기도 했다.

이 탈춤은 저녁놀이로 후향된 모닥불을 피우고 타원형의 맨땅위
에서 가면무극과 마찬가지로 족대, 북, 장고, 피리, 저대 해금등으로
구성된 연주와 엽불타령, 굿거리등에 맞추어 가면울쓴 남자연기자가
추는 춤의 일종이다.

봉산탈춤의 主流思想은 첫째로 破戒僧에 대한 풍자, 두번째는 양
반계급에 대한 모욕, 세번째는 一夫 對 妻·妾의 삼각관계등이며²⁸⁾
가면울쓴 연기자로 하여 금 북, 장고등 악기에 맞추어 추는 춤으
로써 僧侶의 破戒와 民風의 퇴폐를 바로 잡고자 탈춤 놀이개 시

작되었다.

그러나 北韓은 이와같은 伝來의 民俗을 무용과 演劇을 加味하여 소위 「勤勞人民의 勞動과 生活을 진실하게 反映했으며 封建社會의 심각한 階級的 모순을 예술적으로 再現」했다고 하고 統治階級에 대한 當代 人物들의 憎오와 적개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풀이하는등 民俗의 政治目的化를 충실하게 實行해 나가고 있다.

3) 강령 탈춤

봉산 탈춤놀이는 황해도 봉산이 본거지인데 대해 강령탈춤은 같은 도내인 강령에서 시작되었다.

취지는 다른 탈춤과 마찬가지로 雜鬼를 쫓는 의식무, 과거승에 대한 조롱, 양반들에 대한 모욕, 一夫多妻, 妾의 삼각관계 그리고 서민생활의 모습등인데 시기는 역시 단오절을 전후하여 평지에서 추며 그 비용일체는 지방민들의 출연금에 의해 충당되었으며 이 춤이 끝나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놀던 탈과 소도구등은 모두 불태워 없앴다.

봉산탈춤과 비교해 볼때 봉산은 색채적으로도 대단히 강력한 시각을 주는 動的인데 비야 강령은 온화하고 靜的인 느낌을 준다.

또 춤의 모습에 있어서도 봉산춤은 활기있고 패기에 넘친 반면 강령춤은 온화하고 울동적인 감을 줌으로써 의상도 소매가 길어 땅에 닿을 정도며 전자는 현재 유행되고 있는 현대적인 감각이 짙은데 반해 후자는 시대에 맞지 않는 조용한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29)

강령탈춤 역시 탈놀이라는 同質性으로 보아 봉산탈춤과 같이 共產主義의 政策的인 수단으로 利用되고 있음은 틀림없는 일이다.

결국 北韓은 民族的 양식과 형식을 최대한도로 發掘해서 거기에 共產國의 모랄을 넣어 주는 데 급급한 것이다.

다. 其他 (웃놀이, 연날리기, 그네뛰기, 농악, 단심 줄 놀이)

위에서 指摘한 代表的인 춤놀이 외에도 황주의 「소먹이」놀이는 일종의 祈豊民俗으로 正月이나 秋夕에 행하여지는 놀이로서 집집마다 소의 흥내를 내어 먹이를 청하면 그 집主人은 농사가 잘 되도록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놀이다.

平安道 地方에서 성행했던 웃놀이와 연날리기, 그네뛰기, 농악, 그리고 단심 줄놀이도 固有의 民俗으로서 제각기 獨特한 個性點을 지니고 있다.

1) 웃 놀 이

웃놀이는 傳統的으로 繼承돼온 우리나라 固有의 民俗이자 娛樂의 한 型態이다. 편은 짜서 一家친척 또는 친지들이 모여 正月 初하루날 부터 보름날까지 성행되어 왔는데 도박놀이와는 달리 단순한 娛樂으로서 행하여지는 正初의 놀이에 不過하다.

어떻든 웃놀이는 그것이 男女老少를 불문하고 모두가 한꺼번에 어울릴 수 있다는 點에서 大衆的인 娛樂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本來의 意圖를 지닌 웃놀이가 北韓에서는 크게

후퇴하고 있는것 같다. 그것은 설날이라고는 하지만 현재는 한갓 名色에 지나지 않는 實情이고 集團生活에 얽매여 이웃과 가정이 한군데 오붓이 모일 수 있는 機會가 부여되지 않는 現實에서, 즐길 수 있는 娛樂으로는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웃놀이가 다양하고도 재미있는 娛樂의 一種이라는데는 하등의 異論도 없겠지만 北韓의 境遇에 이 傳統的 民俗도 例外없이 變質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忠淸道 地方에서 「자새받기」라고 부르는 境遇가 있는데 반해 北韓의 咸北지방에서는 「손가락 뽑기」 「산가지 따기」, 咸北무실 지방에서는 「콩따기」, 또 一部에선 「재판놀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아도 그들의 思考方式은 남을 侵犯한다든가 아니면 제압하는, 즉 競爭的이면서도 好戰的인 性格을 띠고 있는 것으로 풀이 된다.

이러한 性格變化와는 관계없이 웃놀이가 하나의 전통적인 娛樂에서 크게 後退하고 있는 것은 民俗傳承의 大義에 비추어 또하나의 서글픈 現實이 아닐 수 없다. 社會主義化의 硬化性이 風習의 變質을 自招하고 있는 北韓의 현상은 그들의 젊은 世代에게까지 祖上의 슬기를 앗아가고 있는 것이다.

2) 연 날리기

연 날리기는 全國的인 民俗놀이의 하나였지만 平安道 地方에서는 주로 大同江邊에서 많이 날렸다. 연 날리기는 正月 초하루에서 부터 대보름날까지 날리는데 초하루날은 少年들이 그리고 初이틀날 부터는 靑壯年들이 많이 날렸으며 대보름날에 와서 절정

을 이루었다.

연은 다른 나라에서도 流行되고 있으나 우리의 것이 가장 流名하며 大小 各種을 막론하고 그 全部가 4角장방형으로 되어 있으며 보름이 지난 후에는 연을 날리지 않았다. 보름이 지나 연을 날리는 이가 있으면 고리 白丁이라고 놀려대며 욕을 하는것 때문이다. 30)

3) 그네 뛰기

그네뛰기는 5月 端午節이 되면 平安道 地方의 女性들 사이에서 성행되었다. 이 그네뛰기에서 이긴 사람에게는 재봉틀, 팡목, 명주, 솜 및 수건등을 賞品으로 주었다. 31)

4. 農 樂

농악은 民俗중에서도 一般에게 가장깊숙히 傳來된 民俗중의 하나라 하겠다. 우선 그것이 大衆的이면서 농민들과는 멀어 질 수 없는, 특정한 때가 없이도 즐길 수 있는 놀이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농악과 더불어 곡식을 심고 가꾸었으며 길을 내고 보를 막기도 했고 모내기과 김매기 때에는 作業을 재촉하는 하나의 手段으로 使用되기도 했다.

北韓에 있어서 현재의 농악은 共產施策을 遂行하는 道具로 命脈을 維持, 繼承하고 있다. 특히 農村이 協同化되고 모든 作業이 集團화된 오늘날 北韓은 農民들의 作業能率을 向上시키려는 手段으로 농악을 利用한다.

농악과 함께 부르는 農歌의 一部에 「서마지기 논배미가 반달만큼 남았네, 벼가 무슨 반달이나 초생달이 반달이지」란 귀절이 있는데 北韓에서는 이 귀절을 「그때에 해야 할 일거리를 미루지 않고 해치우려는……」식으로 가사를 變質시켜 굳이 作業能率과 連結시키고 있음을 보아도 짐작이 간다. 어떠한 농악은 이제 民俗이 아니라 오늘날 共産政策의 具現을 위한 한 方便으로 變質되어가고 있음이 틀림없다.

5) 단심줄놀이

1930年代부터 由來된 것이라고 하는 단심줄놀이는 소나무에 여러가락의 줄을 매어 드리우고 그것을 한끝씩 쥐고 돌아가면서 노래하며, 춤을 추는 원무형태의 놀이다.

현재는 北韓의 兒童團員의 入團서약식이 끝난후에 새로 入團한 단원들을 축하하며 즐기고 있다고 하는데 그때 부르는 노래가 또한 걸작이다.

「모여라 동무나! 착취와 압박에, 울음을 우는 동무들! 붉은기 앞으로 모여라, 모여라 힘을 합하자」, 그리고 또한 「……팽이 망치를, 둘러메고, 싸움판으로, 모여라 녀성들, 한데 뭉쳐라, 식칼과 팽이를, 둘러메고, 싸움판으로……」라고 하여 鬪爭과 전투욕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그들은 이 노래를 「민족 해방가」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어린 학생들에게도 共産主義 理念을 철저히 洗腦教育을 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北韓은 傳來의 民俗을 意識적으로 조작, 變形시키고 있는

데 원래 단심출놀이 는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傳統
的인 무용형식을 發展시킨 것으로 威鏡道 端川地方에서 傳來됐다는
얘기도 있다. 어떠한 民俗놀이를 變形, 거기에 共產主義 思想을
注入시키려는 그들의 意圖가 여기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렇듯 수많은 우리 傳來의 固有民俗이 오늘날 北韓에서는 民間
信仰의 一部로서 또는 迷信으로서 많은 것이 없어지고 남아 있는
것조차도 本來의 취지와는 달리 그들의 政治的 利用物로 變質되
었다.

위에서 보는 바와같이 北韓에서는 60年代이후 부터 階級的 立
場으로 보아 자기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분야 즉 생산관
계에 직접관련된 민속놀이에 대해서는 그것을 연극화하고 그렇지않
는 신앙적인 것은 일체 허용치 않는다는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극화하는 까닭은 연극은 인간의 감정을 사로잡고 호소력이 강
하기 때문에 당의 선전, 선동의 수단으로서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하
기 때문이다.

北韓은 演劇의 이러한 특성으로 부터 共產黨은 勞動者, 農民등
北韓住民들에게 金日成 偶像화와 당 정책을 전달하는데 이용도가
높다는 것을 간파하고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8. 娛樂 및 취미

北韓에 있어서 娛樂과 취미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 없으며 北韓住民들은 즐거움을 다만 體育과 藝術에서 찾고 있을 정도다.

말하자면 北韓社會 自体가 조직사회이며 집단적이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娛樂의 施設도 가정 단위로 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각직장이나 집단내에 설치되어 있음으로 이용가치가 별로 없는것도 사실이다.

또한 고된 일상생활의 작업이나 노동속에서 흥미조차 유발할 수 있는 마음과 시간적 여유가 없을뿐더러 시설과 기구도 많지 않다.

현재 娛樂施設로는 장기, 트럼프, 탁구및 바둑등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러한것들조차 직장이나 단체휴게실에 비치되어 있어 휴식시간정도에 약간 즐길수 있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北韓住民의 娛樂과 취미생활로서 할수 있는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體育, 음악, 무용연구등은 체육과 예능면에서 1人1技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용가능한 시설로는 다과점, 음악감상실, 게임룸등이 있으며 당구장, 보링장 그리고 골프장같은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등산, 낚시등도 오락이나 취미생활보다는 일종의 신체단련을 주목적으로 한 「스포츠」라고 보는것이 타당하겠다.

낚시는 주로 강변에 사는 사람들이 부식으로 하기 위해 고기를

잡는다. 그리고 여행은 단체여행이외에는 할수 없는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현재 북한에서 즐길 수 있는 오락 내지 취미생활로는 다음의 몇가지 종목을 例挙할 수 있겠다.

장 기

장기는 오랜 우리 先祖때 부터 傳해져 내려오는 娛樂物의 하나다. 北韓에 있어서는 解放後부터 오늘날까지 오락물로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데 職物人들의 宿直室이나 休息所에 비치되어 있으나 이것도 우리들처럼 日常 어느때고 할 수 있는 오락이 못되고 있다.

農村에는 간혹 個人집에 장기판이 있어서 休日이나 農閑期에 모여서 즐기기도 하지만 장기의 製造, 販賣는 원칙적으로 不許되어 있으며 고작해야 집에서 만들어 使用하는 수 밖에 도리가 없다. 32)

장기는 비록 두사람이 맞두는 娛樂이기는 하지만 必然코 그를 觀戰하는 소위 「훈수꾼」을 동반하는 것이 普通이다.

따라서 흥미진진한 觀戰性을 갖는 장기가 大衆的 오락으로서 계속되는 理由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北韓은 장기놀이에도 있어서도 그들의 共產化 政策을 철두철미하게 注入하고 있음을 엿 볼 수 있다. 즉 李朝王室의 집안이 있던 西川승이 장기를 잘 둔다고 자랑하다가 이름없는 시골 사람에게 여지없이 敗했다는 이야기, 즉 故事를 利用하여 「支配階級의 오만성과 소박한 人民의 슬기로운 지혜가 두드러지게 表現

되었으며 人民의 지혜가 勝利하는 장면을 실로 인상깊게 보여주고 있다」고 구차스런 理論을 끌어 붙이고 있다.

트럼프와 화투

트럼프놀이는 6·25 動亂 당시 中共軍이 갖고 들어와 한때 流行하기도 했으나 中共軍의 撤収와 더불어 「카드」가 品切되는등 한때 쇠퇴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엔 各직장의 休憩室에 비치되어 點心時間이나 日課 후에 一部 中年層들이 다이아몬드 게임을 즐기는 정도이다.

우리 固有의 놀이중의 하나인 화투놀이가 이미 北韓에서는 자취를 감춘지 오래전인 것을 상기한다면 너무나 대조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화투를 없앤 근본취지가 도박성을 배제하자는 것에 있었다고 한다면 트럼프는 도박성을 지니지 않는 다는 것인가? 도박성을 빙자하여 固有의 娛樂인 화투놀이를 없앤 그들이 「트럼프」를 導入해다, 그것도 一部 高級간부층에서만 하는 오락으로 存在시켰다는 것은 도무지 理解가 가지 않는다.

바둑

바둑은 오랜 年源을 두고 전해 내려온 오락의 하나로서 一說에 의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三國時代부터 普及되었다고 한다.

北韓에서 바둑은 休戰後에 없어 졌다가 60年代에 들어서 다시

나타나게 되었는데 주로 學生간에 많이 流行되고 있다.

바둑놀이는 하나의 戰爭을 연상시키게 하고 있으며 소위 전투정신을 배양하는 좋은 手段이라고 自称하면서 비교적 다른 오락보다도 강력하고 있다.

그러나, 워낙 時間이 없는 그들에게는 이것마저도 즐길 充分한 時間餘有가 없는 실정이다.

등 산

우리를 처럼 週末이나 公休日을 利用하여 家族, 親知들과 같이 自然을 찾아 즐기거나 心身을 단련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스포츠」나 軍事訓練의 一環으로 조직적이고 단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등산에 必要的인 個人장비는 있을 수 없고 있다손 치더라도 軍用장비등 극히 制限된 사람이 所持하고 있다.

그리고 금강산, 백두산, 묘향산등 유명한 山도 個人的으로 自由롭게 오를 수 없게 되어 있다.

우리의 登山이 취미나 一種의 오락행위로 볼때 北韓의 그것은 다분히 山岳行軍인 것이며 自由往來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登山 자체가 오락으로 存在할 理는 만무한 것이다.

여 행

여행은 공무여행, 입원치료여행, 정양소, 휴양소등의 休暇여행과 학

생들의 修學여행이 있으며 간혹 父母 또는 친척방문 旅行이 있으나 家族單位의 관광여행이란 있을 수 없다.

만약 個人이 旅行을 하게 된다고 하였을 때는 자기가 속한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은 물론 식사를 할 수 있는 양권(糧券)을 소지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양권이 있어야만이 식량을 배급받을 수 있고 양권없이 는 한끼의 식사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가정에서 얻어 먹는 다해도 일반가정역시 식구수에 따라 식량을 받기 때문에 여행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만큼의 여유가 없다.

또 여관은 국가가 공산당 관리들의 출장을 위해 직접 운영관리하며 따라서 개인이 한가롭게 여행을 즐길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식당역시 개 개인의 식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고 공무출장자들이나 독신자들의 식사편의를 위해 마련된 것이는데 역시 양권을 제시하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교통수단역시 여행을 제재한다. 즉 군무, 공무와 일반의 순서로서 차를 타게 되는데 사사로운 용무로 출타하는 경우 里「인민위원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해도 군무, 공무자가 많은 때에는 차를 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³³⁾

이와같이 여행에 따른 여러가지 제재와 불편때문에 여행을 하고 싶어도 개인으로서 여행할 엄두를 갖지 못한다.

독 서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독서는 모든 책자가 그들의 이데오로기적인 사상의 선전 내지는 선동을 합理化하기 위한것이 대부분이며 특히 최근에 김일성우상화정책의 일환으로 김일성사상 전집이 각분야에 걸쳐 다루어지고 있다.

현대문학서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거의가 6.25 동란과 김일성의 독립운동 및 사회주의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내용물로서 취미나 오락의 일부로서의 독서라기 보다는 차라리 의무감에 의한 독서라고 하는것이 옳은 판단일것 같다.

음악, 영화, 및 연극감상

음악감상에 유독히 취미가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음악감상실이 적어 거의 포기상태이나 그대신 영화, 연극감상은 도시주민들로 하여금 월 2회이상 관람하도록 강요되고 있다.

즉 영화나 연극이 하나의 종합예술로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대중매체로서 공산주의사상과 감정을 고취시키는데 가장 효과가 있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내용도 한결같이 「프로레타리아」革命을 주제로한 행진곡조의 음악을 가미한 것으로 창작방식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활용에 중점을 두고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강요하고 있다. 예를들면 지난 8월 30일 한적대표단이 「평양대극장」에서 관람한 가극 「피바다」는 항일투쟁을 주제로한 공연물로 음악은 단

조롭고 무대배경도 대체로 해가 떠오르는 모습 또는 백두산등을 등장시켜 은연중 김일성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극영화 「꽃피는 소녀」도 항일투쟁을 소재로 다루었고 다음날 평양예술극장에서 관람한 만수대 예술단의 종합예술공연도 반미, 항일투쟁과 김일성의 우상화를 주제로 하였다.

이외에도 「문경고개」라는 무용이나 「키춤」이란 무용도 반미투쟁을 묘사한 독특한 춤의 일종이다.

이처럼 영화, 연극, 무용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예술성을 무시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정책수행에 알맞도록 수정한 내용을 관람 또는 감상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다 방·다과점

다방은 1959년까지도 없었는데 재일교포 복송이 개시됨에 따라 복송된 교포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평양시내에 한두개를 설치하고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평양에는 국제「호텔」안에 다방이 있어 복송교포, 고급간부 또는 출장자들에게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다방에서 파는것과 거의 같은것을 팔고 있으며 값은 한잔에 10전에서 15전정도이다.

다과점도 소수에 불과하며 일반다과점엔 강냉이로 만든 「비스킷」이나, 알사탕, 「도나스」, 생과자, 「초코레트」, 「카라멜」, 「카스테라」등을 팔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당 고위간부를 상대로 개점하고 있는 10호상점에는 비교적 고급과자류가 販売되고 있다.

이같이 다방이나 제과점이 극히 制限되어 있는 까닭은 自由가
억압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들처럼 個人的인 對話나 한가한 時間을
가질 餘有가 없다는 것과 다방이나 제과점을 설치하므로서 精神的
慰安이나 해이를 招來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공산당은 당 政策의 具現을 위해서는 이상의 오락시설이 하
등 不必要한 것이며 오히려 그 防害要因으로 作用할 것이란 생각
을 갖고 있는 것이다.

9. 結 論

北韓은 철두철미한 공산당 一党独裁인 同時에 金日成의 1人独裁 体制가 과거 28年에 걸쳐 계속되어 오는 동안 北韓住民에게 家庭生活을 비롯하여 民俗文化 宗教, 교육에 이르기까지 날조된 宣傳으로 一貫해 왔다.

그 날조된 기만이 오늘에 와서는 形式的이고 外形的이나마 目的을 達成하는데 成功했다고 그들 스스로를 過信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단란한 家族主義的인 분위기속에서 美風良俗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人間의 基本權을 享有하고 있다. 反面 北韓에서는 家庭을 中心으로 한 家族主義 대신에 集團主義가 強要되고 家庭 그 自体를 金日成의 唯一思想과 革命傳統을 學習하는 學習場化시키는데 더욱 더 拍車를 加할 것이 予測된다.

宗教에 있어서는 소련을 비롯한 東歐諸의 여러 나라에서도 점차 信仰의 自由가 어느 정도 保障되어 가고 있는 現時点에서 볼때 北韓도 宗教를 全然 外面할 수는 없을 것 같으며, 겉으로나마 호응하는척 하는 徵兆가 보일것 같이 展望된다.

教育에 있어서 北韓은 共産黨에 의해 주어진 思想體系와 公式化된 知識으로 공산주의 思想으로 武装하는데 窮極的인 目的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徹底한 教育을 履行할 것이다. 이와같은 教育體制下에서 자라난 北韓의 젊은이들은 과연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民族감정을 갖고 있겠는가를 생각할때 적지 않는 疑心을 갖

게 된다.

北韓은 전 韓半島를 全國的 範圍에서 共產化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民俗學이라든가 民俗문제는 自体가 政治目的에 「플러스」가 될 때 利用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없애버리고 自己들의 政策的인 手段으로 利用하고 있다.

현재 北韓에서 履行하고 있는 民俗은 思想教育의 效果를 위해 계속 장려될 것이다.

끝을 맺음에 있어 앞으로 南北의 對話가 계속됨으로 해서 南北韓의 住民들이 지난날 한 民族으로 지내 왔던 사실을 좀더 認識하게 될 것이며, 伝來民俗을 媒介로해서 좀더 같은 民族으로서의 共通된 感情을 느낄 수 있게 되도록 바라고 싶다.

< 註 釈 >

- 註 1) 「국토통일」(국토통일원, 1972年4月). 한병춘논문. 「남북한 단일문제권 형성발전에 관한 연구(上)」, P. 66
- 註 2) 북한의 가정과 부녀자(공산권 문제 연구소, 1972), P. 63
- 註 3) 東亞日報, 72年8月4日
- 註 4) 東亞日報, 전제서,
- 註 5) 北韓(北韓研究所, 1973年11月), P. 212
- 註 6) 金炯旭著「共產主義의 活動과 實際」(光明出版社, 1972), P. 943.
- 註 7) 金炯旭著, 전제서, P. 942.
- 註 8) 東亞日報, 72年7月21日.
- 註 9) 北韓總鑑 45 ~ 68 (공산권 문제 연구소), P. 683.
- 註 10) 東亞日報, 72年7月22日
- 註 11) 오늘의 북한(국제정보사, 1971), P. 50
- 註 12) 東亞日報, 72年7月22日
- 註 13) 이기선편 「오늘의 북한 실정」(대한시사반공교육원, 1971) P. 92
- 註 14) 東亞日報, 72年9月2日.
- 註 15) 東亞日報, 72年9月2日
- 註 16) 北韓總鑑, 상제서, P. 457

- 註 17) 新東亞, 1968 年 6 月号, p.138
- 註 18) 北韓, 1972 年 7 月号, p.177
- 註 19) 北韓, 1973 年 2 月号, p.351
- 註 20) 北韓의 家庭과 婦女子, 상계서, p.33
- 註 21) 北韓, 1973 年 2 月号, p.232 ~ 234
- 註 22) 國際問題(極東問題研究所, 1973, 9, Vol. 4 No.9) p.57
- 註 23) 東亞日報, 72 年 7 月 22 日
- 註 24) 國際問題, 상계서, p.61
- 註 25) 宋錫夏著, 「韓國 民俗考」, (日新社, 단기 4293 年), p.196
- 註 26) 宋錫夏著, 상계서, p.196
- 註 27) 北韓, 1973 年 11 月号, p.274
- 註 28) 北韓, 1973 年 9 月号, p.180 ~ 182
- 註 29) 北韓, 1972 年 11 月号, p.258
- 註 30) 北韓, 1973 年 2 月号, p.351
- 註 31) 共產圈問題 研究室원 「한국통일과 체계재통합」(共產圈問題
 研究所, 1972), p.346
- 註 32) 「북한의 生活実態」(国土統一院, 1971), p.335
- 註 33) 北韓總鑑, 상계서, p.436
- 註 34) 서울신문, 1972 年 9 月 4 日

